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…… **활자**(活字)는 반짝거리면서 **하늘 아래**에서

간간이

**자유를 말하**는데

나의 영(靈)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

벗이여

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

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

마음에 들지 않아라

모두 다 **마음에 들지 않**아라

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

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

저 고요함도 이 **고요함**도

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

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

이 욕된 교외에서는

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

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

간간이

자유를 말하는데

**우스워라 나의 영**(靈)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

- 김수영, 「사령(死靈)」 -

(나)

한강물 얼고, 눈이 내린 날

㉠ 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.

㉡ 훈련받나봐,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.

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

㉢ 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.

㉣ 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

강물 위로 빙그르르, 빙그르르.

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, 우리는

보았다.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.

**언 강물**과 언 하늘이 **맞붙은 사이**로

**저어가지 못**하는 **배**들이 나란히

**날아가지 못**하는 **말**들이 나란히

**숨죽이고 있는** 것을 비웃으며, **우리**는

**빙그르르**. ㉤ 올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.

- 김혜순, 「한강물 얼고, 눈이 내린 날」 -